

재한 중국 유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애착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성향적 낙관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Effect of Parental Attachment on College Life Adjustment by Chinese Students in Korea: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Dispositional Optimism

주원*, 박정윤**, 장영은***

중앙대학교 대학원 아동청소년학과 가족 전공*,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Yuan Zhu(duduzz@live.cn)*, Jeong-Yun Park(pjy4838@cau.ac.kr)**,
Young-Eun Chang(yechang@cau.ac.kr)***

요약

본 연구는 재한 중국 유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애착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성향적 낙관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서울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 유학생 253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SPSS 18.0 프로그램을 빈도분석,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중다회귀분석, Sobel Test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조사대상자의 연령, 학력, 한국어 수준,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신뢰감이 대학생활적응과 긍정적인 관련성이 있었으며, 소외감과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 조사대상자의 연령, 한국어 수준과 부모-자녀 간 애착 중 하위변인 소외감과 성향적 낙관성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 간 애착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성향적 낙관성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나타났다. 따라서 재한 중국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정도를 높이기 위해 안정적 부모애착뿐만 아니라 대학생자녀의 낙관적 생활태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중심어 : | 재한 중국 유학생 | 부모-자녀 간 애착 | 성향적 낙관성 | 대학생활적응 |

Abstract

This study is to examines how cognized parental attachment influence college life adjustment and measures the mediating role of dispositional optimism. 253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participated this study. The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s analysis, Sobel Test via SPSS 18.0 program. Age, educational background, proficiency of Korean, along with cognized communication, faith yielded positive correlation with college life adjustment. And alienation was negative correlation.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convenience sampling method. Age, proficiency of Korean, alienation which is one of the lower factors of cognized parental attachment and dispositional optimism have a positive effect on college life adjustment respectively.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mediating effect of dispositional optimism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the relationship of cognized parental attachment and college life adjustment. Based on the aforementioned results, In order to improve the college life adjusting ability of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 not only stable parental attachment, but also seek method to improve filial personal optimistic cognition.

■ keyword : | Chinese Students in Korea | Parental Attachment | Dispositional Optimism | College Life Adjustment |

1. 서론

현대인들에게 사회·경제·문화 등 각 영역에서 국경이라는 장벽은 없어지면서 기술, 문화,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국가 간에 자유롭게 교류하고 있다. 삶의 범위가 확장되어 사람들은 지구촌 시대에서 살게 되고, 이러한 분위기는 교육시장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각국의 대학들은 더 많은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확대 모집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 한국에는 많은 외국 유학생들이 들어와 있으며, 최근 그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2005년에 외국 유학생은 20,347명에서 2015년 9월까지 총 102,117명으로 10년 간 약 5배가량 증가하였다. 나라별 분포를 살펴보면 중국 62%(63,446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베트남 7%, 몽골 4%, 일본 3%, 미국 1%의 순이었다[1]. 중국 유학생의 비율이 높음으로 이들의 한국 내 유학생생활의 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한편 중국 가정은 외동의 비율이 높아서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먼 나라로 자녀들을 유학 보내는 것보다는 자주 왕래 가능한 근거리 국가인 한국으로 보내는 것을 더 선호한다. 아울러 K-POP과 한국 드라마가 중국 시장에 소개되면서 중국은 한류의 열풍으로 문화교류가 활발하며, 한중 양국의 경제적·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2014년 APEC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되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로 인해 중국 유학생이 한국으로 유학 오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또 한국 정부는 2020년까지 외국 유학생 20만 명으로 늘리기 위한 '스터디 코리아 2020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중국 유학생은 한국 유학에서 더 많은 기회가 주어졌으며, 그 수가 더욱 증가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유학생은 모국을 떠나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생활양식이 시작을 해야 하므로 모든 것이 긴장되고 적응대상이며, 개인적, 사회적, 환경적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2]. 그들은 대학환경 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이에 대한 적응도 필요하다. 더욱이 한국은 순혈주의, 집단주의 등으로 중국을 비롯한 외국인들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어 유학생들의 한국문화 적응과정은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3]. 중국 유학생은 평등을 요구하는 사회주의 이념 하에 성장하였기에 위계질서나 상하관계, 남존여비, 예의 존중을 중요시하는[4] 한국문화와 다른 양상으로 적응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유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학업과 동시에 다른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다중 부담을 갖게 된다. 즉, 유학생생활에 대해 경제적 부담, 언어적 문제, 학업과 친구형성 부담 등의 다양한 측면의 어려움을 갖는 것이다[5]. 이로 인해 중국 유학생들은 적응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거나 학교를 옮기거나 대학을 이탈하여 불법 위장취업을 하는 경우 등 부작용으로 적응문제가 제기되고 있다[6]. 따라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들의 한국 대학생활적응 양상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적응을 도울 수 있는 환경조성과 개인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학생활적응은 대학이라는 환경 속에서 생활하면서 학업, 대인관계능력, 자기관리 기술, 치관정립, 의사결정과 행동양식 습득 등 새로운 생활양식을 정립하고, 자신이 당면한 여러 가지 심리적·사회적·개인적 문제들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여 적응하는 것을 말한다[7]. Baker & Sirky(1984)는 대학에서 개인관계, 과외활동 등의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며, 대학에 호감 및 유대감을 갖고 있는 것을 대학생활적응이라고 하였다[7].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면 개인특성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가족관련 변인에 대한 고찰은 미미하다. 가족 특히 부모변인은 자녀의 일상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선행연구들에서 부모와 자녀 간 관계가 자녀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7][9-13]. 부모-자녀 간 애착이 국내 대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진[7] 반면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으나 부모자녀관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유학생의 경우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학생들의 부모-자녀 간 애착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혀보고자 한다. 또한 대학생의 낙관적인 성향이 부모-자녀 간 애착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매개적인 역할

을 한다고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목적은 재한 중국 유학생들이 부모-자녀 간 애착에 대한 인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성향적 낙관성의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있다. 이를 통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재한 유학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을 도울 수 있는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적응은 기존의 환경에서 새로운 환경에 소속되면서 그 환경 조건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즉,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능동적인 반응으로, 환경에 자신을 맞추고 동시에 개인의 필요에 의해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14]. 또, 적응이란 개인과 환경 간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행동과정이다. 현대 생활에서의 적응은 환경에 수동적으로 잘 적응하여 가는 것이라기보다는 능동적으로 환경 변화에 잘 대처하며, 미래 지향적으로 환경의 주체가 되어서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환경을 이용하여 변화시키는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15].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대학생활적응은 심리·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다양한 측면에서 대학 속에서 겪게 되는 변화와 도전에 따른 일련의 반응과 대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16]. 권혜진(2007)은 대학생활적응을 대학이라는 환경에 적응하고, 생활하면서 대인관계, 학업, 정서적 측면과 같은 다양한 요구를 처리할 수 있는 적절한 반응을 획득하며, 변화와 도전에 대한 일련의 반응과 대처 과정이라고 말한다[17].

최근 몇 년간 중국 유학생들이 증가하면서 중국 유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학업적 수행이 현저히 저하되고,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감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향은 방치될 경우 악순환되어 만성화될 소지가 높다[18]. 많은 선행연구에서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 성별, 학년, 체류기간, 한국어 수준, 유학목적, 경제수준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밝혀졌다[3][4][19][20]. 먼저, 성

별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를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대학생활적응 중 학업적응과 사회적응 수준이 높았다[21]. 그러나 진결(2014)의 연구에서는 유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서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않고 있었다[20]. 학년에 따른 저학년 학생들이 고학년 학생들보다 대학생활적응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2]. 저학년 유학생들은 새로운 대학생활을 시작하면서 긍정적인 기대감, 환경에 대한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임한 결과라고 예측할 수 있다. 진결(2014)에 연구에서는 유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은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밝혀져 결과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20]. 이렇게 연령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가 일관되지 않은 이유는, 연령이 체류기간과 맞물려 그 영향력이 파악되지 않은 것에 기인할 수 있다.

체류기간에 따라서 유학생들의 학업적응, 사회적응 등 대학생활만족도는 U자형 양상을 띠고 있었다[3]. 체류기간이 짧은 유학생은 대학생활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 열정으로 인하여 적응하려는 노력이 증가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새로움에 적응은 되지만 그의 스트레스 경험을 하고, 그로인해 좌절, 불안, 차별감 등으로 적응상의 어려움을 경험하다가 점차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이 완화되면서 다시 대학생활에 대한 적극적으로 적응한다는 것이다. 즉, 연령에 비해 체류기간과 적응은 비교적 일관된 관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 수준도 대학생활적응에 관련변인으로 한국어 수준이 높은 유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대학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3]. 한국어 수준이 높은 유학생들이 내국인들과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한국 친구와 사귀며, 학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음으로 적응에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연구[24]에서는 유학생들의 한국어 수준이 전반적인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도 있었다. 그 외 하정희(2008)의 연구에서는 대부분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의 비싼 물가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상당수의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시간제 일을 하고 있었다[25]. 이는 유학생들의 경제적 사정 역시 학교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을 시사한다. 이상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유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은 성별, 학력, 한국어 수준, 체류기간, 유학 목적, 경제적 수준 등 인구나사회학적 변인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본 연구에도 포함하였다.

이러한 인구나사회학적 변인 뿐 아니라, 유학생의 가족 생활의 특성 역시 대학생활적응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하였다.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는 자녀가 집을 떠나 있는 동안에도 환경을 극복하고 사회적 능력을 계속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도록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7]. 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대학생들은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가 자신의 독립을 격려하는 사람이라 인식하고 부모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26]. 부모와의 안정한 애착이 자녀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애착 이론에 근거하여, 많은 선행연구에서 대학생활적응에 부모애착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왔다 [10][11][22][27][28]. 심태은 등은(2014) 부모애착의 하위변인 중 하나인 소외감이 자녀의 학업적응과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쳤지만, 의사소통과 신뢰감 변인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7]. 대학생자녀가 부모에게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부모를 의지할 수 없으면, 대학생활의 적응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다른 여러 연구에서도 부모애착의 각 하위변인인 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모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고,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잘 형성될수록 자녀가 대학생활적응을 잘 한다고 하였다. 즉, 어머니 또는 아버지와 거리낌 없이 의논할 수 있고, 마음을 숨기지 않고 대화하며, 부모에게 의견을 구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13][14][29]. 하지만 기존 연구들이 주로 내국인 대학생 중심으로 수행되었고, 대학생활적응에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중국 가족은 대부분 핵가족이며, 가족의 유대관계와 융합이 매우 중시한다. 이에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이나 애착정도도 높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측면에 중국 유학생 자녀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지만 실증적 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부모자

녀 애착이 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과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한 중국 유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애착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성향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최근 심리학 분야에서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는 성향적 낙관성은 심리적 안녕, 행복 등 긍정적인 경험을 조망하는 긍정적 심리학의 한 영역이면서 최근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30]. 성향적 낙관성은 선천적 또는 기질적으로 자신이 경험하게 될 사건이나 상황을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것이다[31]. 이는 현실과 미래를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보며, 실패를 일시적이고 이겨낼 수 있는 역경이라고 판단하고, 자신의 행동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신념이라고 볼 수 있다[32][33]. 낙관적 태도와 신념은 어려운 환경적응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한다[34]. 성향적 낙관성은 빈곤, 질병과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변인으로 고려되고 성향이 낙관적일수록 행복감은 높았으며, 주관적 안녕감도 높게 나타났다[35]. 대학생 성향적 낙관성과 적응능력 간에도 정적인 관계가 나타났다[36].

그러므로 유학생들이 외국 생활을 하면서 대학생활 적응정도가 성향적 낙관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조옥경(1999)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기대수준이 낙관적일수록 학교환경에 대한 적응도가 높았고, 교사·교우관계 적응도가 높았으며, 학업과 관련된 생활(시험, 수업 등)에 대한 적응도가 높았다 [37]. Scheier & Carver(1992)의 연구에서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입학 초기 낙관적인 학생들과 비관적인 학생들로 확인된 대학생들의 학업성취 및 심리적 적응을 3년 후에 조사한 연구결과, 성향이 낙관적인 학생들은 비관적인 학생들보다 학업수행이 더 뛰어나고 심리적인 어려움을 덜 겪었으며,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수준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8]. 김중운·최미숙(2013) 역시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낙관적 태도가 대학생활적응의 하위 요인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 대학환경적응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39].

그런데 성향적 낙관성은 심리적인 정체성으로서 가족의 영향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에서 가족관련 요인들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40]. 예를 들어, 부모와 개방적인 의사소통[35]이나,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41]을 경험할수록 자신과 타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적게 나타나서 성향적 낙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자녀가 지각한 부모-자녀 간 애착이 성향적 낙관성을 향상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성향적 낙관성을 매개로 대학 생활적응에 미치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종합하면, 성향적 낙관성은 유학생의 대학적응에 직·간접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성향적 낙관성은 개인의 정서기능으로써 가족환경의 영향 아래 형성되는 점에서 이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자녀 간 애착같이 가족관련 요인들과 관련이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그러나 성향적 낙관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주로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재한 중국 유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애착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향적 낙관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유학생에 대한 성향적 낙관성이 대학 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가 소수이고, 가족관련 변인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연구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한 중국 유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애착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성향적 낙관성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며, 본 연구를 통해서 재한 중국 유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애착, 대학 생활적응, 성향적 낙관성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 향상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선행연구고찰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연구문제를 도출하여 검증하였다.

연구문제1. 조사대상자가 지각한 부모-자녀 간 애착, 성향적 낙관성, 대학생활적응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부모-자녀 간 애착, 성향적 낙관성 및 대학 생활적응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3. 부모-자녀 간 애착과 성향적 낙관성이 대학 생활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4. 성향적 낙관성은 부모-자녀 간 애착과 대학 생활적응에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 효과를 가지는가?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1.1 조사대상자

본 연구는 재한 중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본인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애착이 대학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성향적 낙관성의 매개효과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조사 대상자를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 유학생으로 선정하였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2015. 9)에 따르면, 중국 유학생이 전체 유학생의 62%에 차지한다고 보고, 한 바를 토대로 한국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중국 유학생들을 연구대상자로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현재 서울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 대학원 과정의 중국 유학생들이다.

1.2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 보고식 질문지법을 통해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서 제작된 영어판 설문지나 한국판 설문지는 중국판 설문지로 번역하고, 중국판 설문지는 또 다시 영어판 설문지나 한국판 설문지로 이중 언어 번역을 통해 번역의 오류를 최소화하였다. 예비조사는 2015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30명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부 및 수거하였으며, 예비조사를 통해 설문 문항에 대한 이해도와 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며, 설문지의 표현이나 문맥이 어색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조사는 2015년 6월 4일부터 6월 25일까지 편의표집 방법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의도를 설명하고 참여의사가 있는 대상자에게 방문·인터넷·우편으로 자료를 배

포·수거하였다. 설문지는 총 300부를 배부하였고 이 가운데 272부가 회수되었으며, 회수율은 90.7%였다. 수거된 설문지 중에 불성실하게 답하였거나 답안이 누락되어 분석에 사용할 수 없는 설문지 19부를 제외한 253부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의 구성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독립변인으로 부모-자녀 간 애착, 매개변인 성향적 낙관성, 종속변인인 대학생활적응 모두 자기보고식 설문지로 구성되었다. 측정도구들은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하였으며, 척도의 일부 내용은 연구자가 예비조사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2.1 인구사회학적 변인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중국 유학생의 성별, 연령, 민족, 체류기간, 학력, 한국어 수준, 출생순위, 유학목적 및 가정 경제적 수준을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 포함하였다.

2.2 부모-자녀 간 애착

부모-자녀 간 애착 척도는 Armsden & Greenberg(1987) 개발한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 전체 75문항[42] 중에서 부모-자녀 간 애착과 관련된 문항 28개를 발췌하여 정정숙(1994)이 번안하[43]고 유현숙(2010)이 인용한 부모-자녀 간 애착 척도[44]를 사용하였다. Armsden & Greenberg(1987) 개발한 부모-자녀 간 애착 척도는 부모에 대한 정의적, 인지적, 행동적 측면의 애착정도를 측정하는 척도이며, 3개 하위변인인 '의사소통' 10문항, '신뢰감' 10문항, '소외감' 8문항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하위변인 중 '의사소통'영역은 부모가 나의 감정을 존중해 주고 토론이나 대화할 때 나의 관점을 고려해주고, 걱정거리나 문제에 대해 이야기 등과 같이 부모자녀 간의 언어적 의사소통 정도와 질을 측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신뢰감'영역은 우리 부모가 훌륭한 부모라고 생각하고 부모가 나의 판단을 믿어주며, 걱정거리가 있을 때 부모의 의견을 듣는 것을 좋아함 등과 같

이 자녀의 정서적 욕구에 대한 부모의 반응에 있어서 안정성을 측정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소외감'영역은 내가 부모로부터 별 관심을 받지 못하며, 부모를 믿고 의지할 수 없음 등과 같이 부모로부터 정서적 유리감을 측정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이며, 조사대상자가 지각한 부모-자녀 간 애착의 총점이 높을수록 부모와의 애착이 잘 형성되어 있으며, 애착 안정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부모-자녀 간 애착에서 '의사소통'에 대한 신뢰도 Cronbach α =.866, '신뢰감'에 대한 신뢰도 Cronbach α =.771, '소외감'에 대한 신뢰도 Cronbach α =.792였다. 전체 부모-자녀 간 애착에 대한 신뢰도 Cronbach α =.926이었다.

2.3 성향적 낙관성

성향적 낙관성 척도는 Scheier, Carver, & Bridges(1994)의 생활지향검사(Revised Life Orientation Test: LOT-R)[43]을 정혜연(2009)이 번안한 척도[46]를 사용하였다. LOT-R는 성향적 낙관성을 단일차원으로 측정하는 척도이며,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예비조사를 거쳐 신뢰도가 낮은 문항들과 조사대상자들이 설문지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포함한 문항들을 제거하여 수정하며, 이를 기초로 하여 5문항으로 성향적 낙관성을 측정하였다.

'성향적 낙관성'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생각을 갖는 것, 일의 결과에 대한 긍정적 예측, 일에 대한 강박적 기대를 갖지 않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총점이 높을수록 성향적 낙관성 경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성향적 낙관성에 대한 신뢰도 Cronbach α =.607이었다.

2.4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 척도(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는 Baker & Siryk(1984)가 개발

하[7]고 양혜선(2004)이 수정·보완한 것[47]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대학이라는 환경 속에서 학업생활, 대인관계, 과외활동, 심리적 스트레스, 대학에 대해 호감정도를 측정한다. 4개 하위변인인 ‘학업적응’ 24문항, ‘사회적응’ 15문항, ‘개인-정서적응’ 16문항, ‘대학환경’ 12문항 총 6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하위변인 중 ‘학업적응’영역은 학업진도를 잘 따르고, 과제수행이나 성적에 만족함 등과 같이 학업과 관련된 생활에 적응하는 수준을 측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적응’영역은 교우관계를 잘 유지하는 능력이 있고, 과외활동에서의 만족감과 같이 대학 내에서 대인관계나 과외활동과 같은 생활에 적응하는 정도를 포함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정서적응’영역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기가 힘들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있으며, 우울하고 울적함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겪는 심리적 스트레스의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환경적응’영역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대한 만족정도, 지속적으로 학교생활하고자 하는 의지 등으로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학에 대한 관심과 호감의 정도를 측정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총점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대학생활적응에서 ‘학업적응’에 대한 신뢰도 Cronbach α =.844, ‘사회적응’에 대한 신뢰도 Cronbach α =.768, ‘개인-정서적응’에 대한 신뢰도 Cronbach α =.835, ‘대학환경적응’에 대한 신뢰도 Cronbach α =.838이었다. 전체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신뢰도 Cronbach α =.928로 나타났다.

3.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종합해보면, 대학 재학 중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으며, 20대의 한국으로 체류기간은 36개월 이상인 경우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중간 정도의 한국어 수준 자가 다수였으며, 외동자녀의 비율이 높았다.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유학하러 온 학생이 가장 많으며,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중간 정도로 지각하고 있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인	구분	n(%)
성별	남	84 (33.2)
	여	169 (66.8)
연령	20세 이하	8 (3.2)
	20세이상~25세미만	130 (51.4)
	25세이상~30세미만	100 (39.5)
	30세 이상	15 (5.9)
	M(SD) (세)	24.0 (3.2)
민족	한 족	208 (82.2)
	조선족	37 (14.6)
	기 타	8 (3.2)
체류기간	12개월 미만	28 (15.0)
	12개월이상~36개월미만	103 (40.7)
	36개월 이상	112 (44.3)
	M(SD) (개월)	36.5 (24.9)
학력	대학생	155 (61.3)
	대학원생	98 (38.7)
한국어수준	상	37 (14.6)
	중상	82 (32.4)
	중	106 (41.9)
	중하	16 (6.3)
	하	12 (4.7)
출생순위	장남 / 녀	67 (26.5)
	둘째 이하	8 (3.2)
	막내	42 (16.6)
	외동자녀	136 (53.8)
유학목적	목표달성	80 (31.6)
	학위취득	84 (33.2)
	한류선호	6 (2.4)
	전공배움	44 (17.4)
	부모로부터 독립기타	36 (14.2)
가정경제수준	상	8 (3.2)
	중상	50 (19.8)
	중	154 (60.9)
	중하	37 (14.6)
	하	4 (1.6)

4. 자료의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변인과 관련변인들의 전반적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가 지각한 부모-자녀 간 애착 및 성향적 낙관

성에 따른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변인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변인, 부모-자녀 간 애착, 성향적 낙관성에 따라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자가 지각한 부모-자녀 간 애착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성향적 낙관성이 매개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관련변인들의 전반적 경향

조사대상자의 부모-자녀 간 애착, 성향적 낙관성, 대학생활적응변인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고자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가 지각한 부모와의 애착 평균은 3.34점($SD=.28$)이었으며, 하위변인의 평균을 살펴보면, 신뢰감은 3.68점($SD=.54$), 의사소통은 3.66점($SD=.66$), 소외감은 2.52점($SD=.68$)이었다. 둘째, 성향적 낙관성 경향성은 평균점수는 3.70점($SD=.59$)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생활적응 평균점수는 3.28점($SD=.42$)이고 하위변인별 평균을 살펴보면, 대학환경적응 영역의 평균점수는 3.71점($SD=.59$), 사회적응 영역의 응답자 평균은 3.27점($SD=.47$), 개인-정서적응 영역의 평균이 3.22점($SD=.56$)이며, 학업적응 영역은 평균 3.14점($SD=.48$)으로 나타났다.

표 2. 조사대상자의 관련변인들의 전반적 경향성

변인	하위변인	점수범위	M(SD)
부모자녀 간 애착	의사소통	1.40~5.00	3.66(.66)
	신뢰감	1.90~4.70	3.68(.54)
	소외감	1.25~4.38	2.52(.68)
	전 체	2.43~3.93	3.34(.28)
성향적 낙관성		2.20~5.00	3.70(.59)
대학생활적응	학업적응	1.96~4.50	3.14(.48)
	사회적응	1.80~4.67	3.27(.47)
	개인-정서적응	1.25~4.88	3.22(.56)
	대학환경적응	2.00~5.00	3.71(.59)
	전 체	2.31~4.55	3.28(.42)

2. 인구사회학적 변인, 부모-자녀 간 애착, 성향적 낙관성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

중국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관련변인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3]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과 관련변인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연령($r=.291, p < .01$), 학력($r=.222, p < .01$), 한국어 수준($r=.218, p < .01$), 부모와 의사소통($r=.290, p < .01$), 신뢰감($r=.368, p < .01$), 성향적 낙관성($r=.404, p < .01$)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조사대상자가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한국어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와 의사소통이 활발할수록, 신뢰감이 높을수록, 성향적 낙관성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한다고 지각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과 소외감이($r=-.360, p < .001$),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조사대상자가 부모에게서 느끼는 소외감이 적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한다고 알 수 있었다.

3. 인구사회적 특성, 부모-자녀 간 애착과 성향적 낙관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지각한 부모-자녀 간 애착, 성향적 낙관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지각한 부모-자녀 간 애착, 성향적 낙관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Model I에서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만을 투입한 결과 전체 설명력은 11.7%를 차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F=4.040, p < .001$). 유의한 변인은 연령($\beta=.290, p < .001$)과 한국어 수준($\beta=.168, p < .05$)이었다. 즉, 조사대상자는 연령이 높을수록, 한국어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Model II에서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인에 더하여 부모-자녀 간 애착 변인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결과, 설명력은 Model I보다 15.1% 증가하여 26.8%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F=8.037, p < .001$).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변인은 연령($\beta=.349$,

표 3. 관련변인 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 연령	1								
2. 체류기간	.556**	1							
3. 학력	.579**	.383**	1						
4. 한국어수준	.291**	.306**	.309**	1					
5. 가정경제수준	-.028	.029	.057	.041	1				
6. 의사소통	.108	.116	.103	.090	.149*	1			
7. 신뢰감	.091	.146*	.141*	.132*	.165**	.825**	1		
8. 소외감	.034	.047	.110	.098	.176**	-.742**	-.762**	1	
9. 성향적 낙관성	.118	.017	.096	.058	-.003	.264**	.335**	-.257**	1
10. 대학생활적응	.291**	.116	.222**	.218**	-.002	.290**	.368**	-.360**	.404**

* α .05, ** α .01

1. 연령 2. 체류기간 3. 학력 4. 한국어수준 5. 가정 경제수준 6. 의사소통 7. 신뢰감 8. 소외감 9. 성향적 낙관성 10. 대학생활적응

$p < .001$, 신뢰감($\beta=.259, p < .05$)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체류기간($\beta=-.141, p < .05$), 소외감($\beta=-.329, p < .01$)이었다. 유학생들은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자녀 간 신뢰감이 높을수록, 체류기간이 짧을수록, 부모에게서 느끼는 소외감을 낮게 인지할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Model I 과 비하면 Model II에서 부모-자녀 간 애착 변인을 추가적인 투입한 후 한국어 수준이 조사대상자의 대학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의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지는 동시에 체류기간이 조사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Model III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인과 매개 변인인 성향적 낙관성 변인을 동시에 투입한 결과, Model III의 전체 설명력은 Model I 보다 13.0% 증가하여 24.7%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F=8.850, p < .001$). 조사대상자의 성향적 낙관성($\beta=.366, p < .001$)이 클수록, 연령($\beta=.232, p < .01$)이 많을수록, 한국어 수준($\beta=.157, p < .05$)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IV에서 관련변인을 모든 투입하여 결과를 산출하였다. 전체 설명력은 33.2%였으며, Model I 보다 21.5%, Model II보다 6.4%, Model III보다 8.7% 증가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F=9.934, p < .001$). 전체 변인을 투입하였을 때,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변인은 연령($\beta=.301, p < .001$)이었으며, 다음으로 성향적 낙관성($\beta=.273, p < .001$), 소외감($\beta=-.312, p < .01$), 한국어 수준($\beta=.126, p < .05$) 순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자가 연령을 높을수록, 성향적 낙관성이 강할수록, 부모와의 소외감을 낮게 지각할수록, 한국어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4. 조사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변인	Model I	Model II	Model III	Model IV	
	β	β	β	β	
인구 사회학적 특성	성 별	.009	-.019	.007	-.016
	연 령	.290**	.349**	.232**	.301**
	민 족	-.059	-.012	-.067	-.028
	체류기간	-.116	-.141*	-.067	-.097
	학 력	.036	-.024	.020	-.025
	한국어 수준	.168*	.124	.157*	.126*
	출생순위	-.048	-.060	-.034	-.053
부모 자녀 간 애착	가정경제수준	-.008	-.074	-.009	-.061
	의사소통		-.193		-.174
	신뢰감		.259		.159
	소외감		-.329**		-.312**
성향적 낙관성			.366***	.273***	
Constant(상수)	2.224	1.279	1.432	2.082	
R ²	.117	.268	.247	.332	
adj R ²	.088	.235	.219	.298	
F값	4.040***	8.037***	8.850***	9.934***	

1. 성별: 0=남, 1=여 2. 민족: 0=한족, 1=소속민족 3. 학력: 0=학부생, 1=대학원생 4. 출생순위: 0=외동, 1=외동 이외
* α .05, ** α .01, *** α .001

4. 부모-자녀 간 애착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성향적 낙관성의 매개효과

조사대상자가 지각한 부모-자녀 간 애착이 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에서 성향적 낙관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절차[48]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검증 방법인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가 지각한 부모-자녀 간 애착 및 대학생활적응 관계에서 성향적 낙관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인을 통제하고 지각한 부모-자녀 간 애착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성향적 낙관성 변인을 투입하였을 때, 애착변인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이 감지되었다. Sobel test를 통해서 부모-자녀 애착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성향적 낙관성($Z=3.607, p < .001$)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검증하였다[표 5].

즉, 조사대상자가 일상에서 부모-자녀 간 애착이 강하다고 느낄수록 자신의 대학생활에 대한 적응을 잘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향적 낙관성을 통해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현실의 상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할 때 더 나은 대학생활적응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부모-자녀 간 애착 및 대학생활적응 간 성향적 낙관성의 매개효과 검증

경로	Sobel Test
부모-자녀 간 애착 → 성향적 낙관성 → 대학생활적응	3.607***

*** $p < .001$

V. 논의 및 제언

1. 논의

본 연구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부모자녀관계가 성향적 낙관성을 매개로 하여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몇 가지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조사대상자인 유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은 보통 수준이었다. 하위영역을 보면 대학환경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 학업적응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중간 이상으로 밝혀진다. 이러한 결과는 유학생들이 대학생활을 잘 적응하고 있다는 민현정(2013)의 연

구와 유사하였다. 중국 유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영역별로 볼 때 대학환경적응과 사회적응보다 개인-정서적응과 학업적응에서 부분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학생활의 어려움이 의사소통의 문제, 문화 차이와 학교체계의 이질감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예측되는 부분이다. 특히 유학생들의 본국으로 향수, 우울이나 무력감 등의 문제는 학교생활에 국한하지 않고 개인 삶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는 문제임으로 자신의 정서적인 문제나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또래집단의 협력, 학교 내 상담센터에서의 지속적인 상담서비스 제공, 학교 내에서 학업지원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

또한, 가족, 친구를 떠나, 낯선 나라에 와있는 유학생들이 많이 외롭고 고향을 그리워해서 학교에서 비슷한 연령의 또래집단이나 같은 고향집단이 서로 연락해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며, 유학생들의 정서를 긍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내국인 학생들에게 개설된 외국어 교양수업과 같이 유학생의 언어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어 강좌를 개설해주어, 유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켜서 학업과 생활적응에 유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해 볼 수 있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의 결과에서 관련변인으로 연령, 부모자녀애착 변인 중 부모와의 소외감과 성향적 낙관성이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으로 밝혀졌다. 유학생의 연령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한다는 것과 학력에 따라 대학원생 집단이 대학생 집단보다 대학생활적응을 잘한다는 결과를 연결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대학원생은 대학생에 비해 본국(중국)이든 한국이든 대학생활경험이 있고, 대학생활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처음 대학에 경험하는 대학생보다 외국생활에서도 익숙하게 대처할 수 있다. 따라서 유학생의 경우도 학부와 대학원으로의 진학여부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정도에 차이가 있어야 하며, 학부모의 진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같은 유학생들 간의 멘토링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상호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학생활적응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한편, 조사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부모-자녀 간 애착의 하위변인인 의사소통과 신뢰감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소외감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심태은과 이송이(2014)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즉, 대학생이 부모자녀 관계에서 느끼는 소외감이 낮을수록 유학생 생활 적응을 잘 하는 것은 부모와의 유대감을 잘 형성하는 것이 유학생 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유학생들의 정서적인 어려움은 본국의 부모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정부분 해소될 수 있는데 부모와의 관계에서 소외되었다고 느낀다는 것은 타국에서의 적응에 문제가 발생할 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1차적 지원책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모자녀간의 소외감은 유학생 자녀들의 정서적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는 기제가 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중국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위해서 학생생활상담 시설 등에서 유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자녀 간 관계 개선과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간접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향적 낙관성이 조사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변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조은아와 이희경(2011)의 연구에서 성향이 긍정적인 사람이 역경을 맞이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동기화되며, 문제해결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대학 때 겪는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대학생활적응력이 높다[47]는 연구결과와 자녀의 낙관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을 더 잘한다는 결과[32]와 맥락이 같은 결과이다. 성향적 낙관성은 유학생들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성향을 가질 때 유학생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문제해석을 하고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게 됨으로써 대학생활에서의 적응을 더 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성향적 낙관성 변인이 부모-자녀 간 애착 및 대학생활적응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된 자녀들은 성인기에 이르러도 자신의 문제에 대한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높은 자신감, 낮은 우울을 보였던 반면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자녀

가 정서적 문제를 갖게 될 수 있다[50]. 이는 낙관적 성향의 형성은 안정된 부모애착과의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이지연·임성문(2006)의 연구결과[51]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부모자녀 애착관계와 성향적 낙관성을 연계하여 해석해 본다면, 유학생들의 낙관적 성향을 향상시키는 것이 독립적이고 긍정적으로 유학생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일차적인 기제가 될 수 있으며, 낙관적인 성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모자녀간의 애착관계를 높이는 노력도 동시에 필요하다. 즉, 부모자녀간의 애착과 성향적 낙관성의 영향력을 같이 고려해볼 때, 부모자녀간의 소외감을 줄이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수 있도록 촉진함으로써 대학생 자녀들이 자신의 현재 생활을 잘 적응해갈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제언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통해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자녀 간 애착을 평가하였으므로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정확도의 측면에 이의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유학생 대상의 연구에서 부모-자녀 간 애착을 부모 역시 직접 평가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외국에서 사용한 것을 중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했다. 그러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미묘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중국에 적용 가능한 성향적 낙관성 관련 척도를 개발 또는 조정하여 적절한 척도를 활용한 연구가 추후에 수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제한 중국 유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변인이 많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간 애착변인만으로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다. 따라서 중국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의 연구에서는 가족응집성 등 다양한 가족변인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제한 중국 유학생의 대학생활이 가족관계 개선이나 강화를 통해서도 잘 적응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5 유학생관련 현황, 2105.
- [2] 이상미, “외국인 유학생의 이문화에 대한 태도와 개인적 특성이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4호, pp.368-378, 2014.
- [3] 민현정, *중국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연구*, 한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4] 하정희, “중국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0권, 제2호, pp.473-496, 2008.
- [5] 김영경, “학교상담: 중국, 일본 유학생의, 한국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요구 분석,” 상담학연구, 제10권, 제1호, pp.535-559, 2009.
- [6] 왕방, 이창식, “재한 중국 유학생의 여가만족과 희망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1권, 제3호, pp.397-405, 2013.
- [7] 심태은, 이송이, “부모애착 및 스마트폰 사용이 대학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19권, 제3호, pp.471-487, 2014.
- [8] R. W. Baker and B. Siryk, “Measuring academic motivation of matriculating college freshmen,”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Vol.25, No.5, pp.459-464, 1984.
- [9] 이진숙,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 및 부모에 대한 애착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10] 김소라, *부모애착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 및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11] 이희영, 최태진, “애착유형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과 성별에 따른 차이,” 상담학연구, 제5권, 제1호, pp.79-94, 2004.
- [12] 박범혁, 정영숙,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부모와의 애착 및 대학생활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5권, 제3호, pp.45-57, 2007.
- [13] 김미경, 김영혜, “부모애착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발달지원연구, 제2권, 제2호, pp.115-129, 2013.
- [14] 이선아, “대학생의 부모 애착과 의사소통의 유형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가족치료연구, 제12권, 단일호, pp.57-71, 2014.
- [15] 손교교,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16] 김종운, 최미숙, “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자아탄력성 및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제20권, 제2호, pp.45-68, 2013.
- [17] 권혜진, *대학생의 대학환경풍토 지각과 대학생활적응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18] 김종운, 김지현, “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9호, pp.248-259, 2013.
- [19] 이채식, “중국인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 결정요인 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제9권, 제2권, pp.121-140, 2012.
- [20] 진걸, “중국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교류분석상담연구, 제4권, 제1호, pp.75-94, 2014.
- [21] 서선자, 금명자, “재한 일본 유학생의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유형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인간이해, 제33권, 제1호, pp.35-47, 2012.
- [22] 장춘설,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부모와의 애착 및 대학생활적응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23] 김선아,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 학생생활연구, 제17권, pp.57-68, 2010.
- [24] 박은미, 황병의, 정태연,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스트레스연구, 제18권, 제2호, pp.145-152, 2010.
- [25] 하정희, “중국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0권, 제2호, pp.473-496, 2008.
- [26] 조수진,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정도와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27] 박범혁,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부모와의 애착 및 대학생활적응*,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28] 樊爲, *大學生心理健康之家庭影響因素研究*, 四川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9.
- [29] 이지미, 김현주, “청소년이 지각한 모-자녀 간의 의사소통과 자아탄력성 및 학교적응간의 관계,” *미래청소년학회지*, 제8권, 제4호, pp.97-120, 2011.
- [30] 이은실,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 질 및 자녀의 성향적 낙관성 영향요인*,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31] M. F. Scheier and C. S. Carver, “Effects of optimism 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well-being: Theoretical overview and empirical updat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Vol.16, No.2, pp.201-228, 1992.
- [32] 김성수, “어머니의 낙관성이 양육태도와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 간의 관계에 미치는 효과,” *영유아 교육연구*, 제9권, 단일호, pp.145-170, 2006.
- [33] G. Hornby and M. Seligman, “Disability and the family: Current status and future developments,” *Counselling Psychology Quarterly*, Vol.4, No.4, pp.267-271, 1991.
- [34] 정혜연, 이정윤, “아동, 청소년상담: 청소년의 낙관성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대처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제10권, 제4호, pp.2367-2381, 2009.
- [35] 안운미,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과 낙관성 및 행복감의 관계*,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36] 齊曉棟, “大學生氣質性樂觀·適應性与生活滿意度的關係,” *西南大學學報社會科學版*, Vol.39, No.2, pp.77-82, 2013.
- [37] 조옥경, *낙관적-비관적 성향과 고등학생의 학교 생활적응과의 관계*,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38] 김보영, *청소년의 낙관성 수준에 따른 정서표현 갈등과 삶의 만족도 차이*,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39] 김중운, 최미숙, “연구논문: 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자아탄력성 및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제20권, 제2호, pp.45-68, 2013.
- [40] 이은실, 오윤자,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 및 자녀의 성향적 낙관성,” *한국복지상담교육학회*, 제3권, 제1호, pp.1-18, 2014.
- [41] 김현숙, *청소년 애착과 지각형성 및 대인관계문제와의 관련성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42] G. C. Arnsden and M. T. Greenberg,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16, No.5, pp.427-454, 1987.
- [43] 정정숙, *자아정체감과 독립성 및 애착간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44] 유현숙,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에 대한 애착과 우울감 및 분노표현 방식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45] M. F. Scheier, C. S. Carver, and M. W. Bridges, “Distinguishing optimism from neuroticism (and trait anxiety, self-mastery, and self-esteem): a reevaluation of the Life Orient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67, No.6, p.1063, 1994.
- [46] 정혜연, *청소년의 낙관성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대처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47] 양혜선, *애착유형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대학 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48] R. M. Baron and D. A. Kenny, “The moderator -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No.6, p.1173, 1986.
- [49] 조은아, 이희경, “낙관성/비관성이 대학생활적응 및 긍정/부정 정서에 미치는 영향: 성취목표지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8권, 제12호, pp.351-374, 2011.

[50] 김남영, 부모애착과 청소년의 걱정과의 관계에서 낙관성의 매개효과 검증,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51] 이지연, 임성문, “성인애착과 대학생의 우울과의 관계: 낙관성과 비관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제7권, 제4호, pp.969-984, 2006.

장 영 은(Young-Eun Chang)

정회원



- 2003년 :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Sciences 철학박사
- 2008년 ~ 현재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관심분야> : 아동발달, 아동복지

저 자 소 개

주 원(Yuan Zhu)

정회원



- 2013년 8월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사
- 2016년 8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아동청소년학과 가족전공 석사
- 2016년 9월 ~ 현재 : 중앙대학교 대학원 아동청소년학과 가족전공 박사과정

공 박사과정

- 2013년 9월 ~ 2015년 8월 : 중앙대학교 국제교류팀 조교
- 2015년 9월 ~ 현재 : 다에다문화학교 강사

<관심분야> : 가족복지, 가족상담, 다문화가족

박 정 윤(Jeong-Yun Park)

정회원



- 1999년 2월 : 중앙대학교 가정학과 이학박사
- 2004년 ~ 현재 :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관심분야> : 가족복지, 가족상담, 가족생활교육